제744호 천주교 전주교구 주보 1987. 2. 22. (1)

연중 제 7 주일

기도서 352면 (A해)
제1독서 : 레 위 19,1-2,17-18
제2독서 : I 고린 3,16-23
복 음 : 마 태 5,38-48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마태 5, 19)

□ 강 론

사랑하며 용서하는

황 인 규 신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태 5,44)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생각해 본다. 내가 과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이보다 더 실천하기 어려운 교훈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우나, 나를 공공연하게 또 음흉하게 해치려고 애쓰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를 비방하고 해치려 들고 모욕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힘든 일중의 하나이다. 유태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의 처절한 악몽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단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잊어버릴 수는 없노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 만큼만 용서받기를 바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마태 6,15). 무정한 채무자의 비유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희망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준다.

자비 또한 우리가 베푼 것 만큼 받게 되는 것이다. 아느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아 이름을 짓는 일에 무척 고심하던 끝에 "바다"라는 이름이 떠올랐단다. 그 이유는 이 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맑은 물도 수용하고, 저 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탁한 물도 수용하고, 벼라별 것을 다 마다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이 바다의 생리이기에 그렇게 정했다고 들었다. 참으로 사려깊은 부부라 생각된다. 그릇도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도 그렇다. 소인배는 소인배대로 대인은 대인대로, 사람을 수용하는 법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을 안단다.

용서하는 행위는 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큰 피해를 입은 사람, 어떤 불의의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다. 실상 용서는 새로운 출발 때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선의의 요소는 악한 원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하느님의 형상은 악한 원수의 양심에도 아로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기에, 여기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당위성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움은 미움을 낳게 하고 폭력은 폭력을 더하게 하고 자인성은 자인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불가결의 요소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진정 용서할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요촌천주교회)

소리 고문에 대하여

1, 사전에서의 뜻풀이

피고인·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 오늘날에 있어서는 폐지되었음. 족쳐 물음. 족침. 모진 문초'(새 우리말 큰사전)—고문(拷問)은 육체적 고통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인격의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참으로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시퍼렇게 살아서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문제이고.

2. 헌법전의 선언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제11조 제2항과 제6항)—법이 있으면 무엇하겠는가, 지키지를 않으니.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법인데, 기초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어찌되겠나?

3. 모스크바에서의 AP통신

소련 러시아 공화국내 카렐리아 자치공화국 당국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 2명을 투옥하고, 고문사실의 은폐를 기도한 책임을 물어 카렐리아 공화국 내상을 비롯, 5명의 관리를 해임시켰다고 소련 관영 주간지 오고뇨크지 최신호가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가 지난달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비밀경찰 책임자가 기자 1명을 박해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는 사실을 전례없이 보도한 데 이어, 최근 법 집행기관의 부패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일련의 캠페인중 일부로 주목을 끌고 있다.(동아일보 2월17일자 4면)—비밀의 장막인데다가, 거짓말을 물마시듯이 하는 자들이라서 믿기우지가 않는다. 설마 그랬을라고? 자다가도 웃음이 터질 이야기다.

숲정이 산책

□ 교회공동체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본당은 전 세계에 세워진 볼 수 있는 교회를 표상한다." 그래서 본당은 모든 사목활동에서 교구와 고립되지 말아야 하고 교구 사목지침과 그 방향을 따라야 하며 교구 사목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본당들도 본당의 울타리를 넘어 교구내 타본당과 협력하고 나아가서는 교구 자체와 일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각 본당들이 교구 사목지침에 일치하고 지구내 본당간의 협력은 물론 다른 본당들과 협력하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구단위 본당들이 함께 모여 사목경험을 서로 나누고 함께 사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지구 안에서 계층별로 사목자들과 함께 모여 사목연구와 방향을 논하고 협력하는 지구단위 사목을 위하여 지구가 나뉘어지고 모여져야 한다.

본당들간의 협력, 특히 도시 본당과 시골 본당간의 협력은 현대에 와서 시급히 요청되는 일이다. 몇몇 본당이 함께 피정이나 교육을 실시하든지, 단체들을 교류하고 합동으로 야외미사 집전, 성체거동 실시, 신앙대회 개최 등 각종 신심행사를 함께 하면서 지구내 각 본당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교구에서는 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5개 지구를 10개 지구로 세분 분할하고 지역교회의 사목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새로 책임을 맡으신 지구장 신부님을 중심으로 지구의 일치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

◇ 전주교구 10개 지구장 ◇

지 구	지 구 장	지 구	지 구 장	특 수 사 목
북 전 주	김 봉 희 신부	임·순·남	염 기 봉 신부	전 주—법 석 규 신부
남 전 주	박 중 신 신부	김 제	황 인 규 신부	신학교—왕 수 해 신부
군 · 옥	양 재 철 신부	무·진·장	문 정 현 신부	군 종—안 철 문 신부
이 리	이 수 현 신부	삼 례	유 종 환 신부	
정 읍	안 용 기 신부	익 산	김 병 엽 신부	

성서교실 ⑯

앙갚음 하지 말아라(마태 5 : 39).

「보복하지 말라」(마태 5 : 38~42)는 이 대목은 이 세상의 도덕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의 도덕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은 인간적인 완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급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느님처럼 완전하기를 바라는 높은 도덕이다. 「하느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따라서 마음속에 분노, 증오, 악의가 추호도 있어서는 안된다. 하느님 나라에 적합한 성실, 순결이 인간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실행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느님 나라에 있어서만이 이것은 실행 가능할 것이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죽고, 하느님의 나라에서 산다. 크리스찬에게 이 세상은 출가외인의 집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흥미, 생존욕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도덕이기에, 이 세상의 사회도덕과 반대가 되고, 그것이 안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크리스찬 도덕은 하느님 나라의 도덕으로, 그것은 이 세상에 죽는 자의 도덕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이 세상의 도덕과 모순된다는 것, 당연하다. 단 선·악의 문제는 별문제이다. 크리스도교의 도덕은 사회개량을 위한 도덕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이다. 그것은 하느님 나라에 사는 자의 도덕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본문(本文) 내용의 해답이 가능한 것 같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갈라 2 : 20)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것의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 자연의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생존욕에 반(反)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생존욕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오직 하느님만을 향해서 걸어간 사람,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애를 지닌 사람, 예를 들면 성(聖) 프란치스꼬 성인(聖人)같은 사람만이 이것의 실행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正義)와 사랑의 십자로에서 살고 있다. 정의(正義)대로만 산다면, 결국 실행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랑」이 우위여야 하는 것이다.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DAEWOO 대우직영유통 김제지점

대우전자 가전제품, 로얄피아노 판매

김제읍 요촌리 156—7(매일회관 앞)

전화 ② 4551

지점장 정 병 태(방지거)

大入종합반 모집

문과 4반 · 이과 5반

(선택별 반편성)

학습분위기가 가장 좋은 학원! 성적이 가장 좋은 학원!

개강 : 3월 3일(火)

대입 전문 한 샘 학 원

전주 74—7424(시청옆)

여사무원 모집

자격 : 신자, 여상출신, 주산부기, 타자 3급이상 자격증 소유자

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제기능자격증, 이력서(자필,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서 각 한통식)

제출마감 : 3월 7일

제출처 : 복자성당 사무실

교 구 소 식

1. 사제평의회 : 25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2. 제11기 예비신자 교리반 개강(지성인을 위한 가톨릭 신앙강좌) : 개강일시—3월 6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타 3층 회의실, 접수—2월 27일까지 교육국 대상—20세~50세(고졸 이상으로 본당에서 교리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는 분) 영세일—10월 1일, 교리시간—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
3. 알립니다 : 1987년 2월 8일 천주교 전주교구 중·고 지도자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중·고지도자 연합회 명칭을 중·고등부 교리교사 연합회로 바뀌었읍니다
4. 남전주·북전주 중·고 교리교사 정기총회 : 27일 오후 6시, 장소—중앙천주교회
5. 2월중 은혜의밤 및 철야기도회 개최 : 일시—27일(금) 오후 11시~28일(토) 오전5시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초청강사—한봉섭 신부님, 대상—모든 교우들
6. 베소라성서 초급반 개강 : 25일(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가톨릭센타 3층, 강사—김보나 수녀, 회비—매월 3천원

□ 인사발령 통보

본 교구제단 학교법인 해성학원에서 유지 경영하는 성심 여중·고 및 해성 중·고등학교의 교직원을 본 법인 정관 제67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은 발령을 알립니다.

성 명	발 령 지	전 임 지
천 전	성심여고 교장	해성고 교장
이 상 용	해성고 교장	성심여고 교장
방 춘 원	성심여고 교감	성심여중 교감
유 대 희	성심여중 교감	해성고 교사

10만인 성지순례

1코스 : 숲정이→치명자산			2코스 : 여산→천호
일	요일	담 당 신 부	담 당 신 부
22	일	김 병 운 신부	
1	일	김 환 철 신부	
7	토	이 상 섭 신부	김 의 철 신부

♣ 잠 깐 !

☆ 10만인 성지순례

자치교구설정 50주년 기념 지속 행사로 계획되어, 실시되어 온 10만인 성지순례 참가 현황은 1987년 2월 15일 현재 30개 본당 참가, 18,865명이 참여했고 15,388,575원의 헌금이 모아졌읍니다.

그동안 날씨 관계로 중단되었던 여산→천호간의 성지순례도 3월부터 재계됩니다. 보다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므로써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순교정신을 배우고,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깊이 하고 50주년의 이 해를 보람있게 보냅시다.

3월부터 시작되는 성지순례 시간은 다음과 같고 당일 전례 주례와 봉사자는 매주 숲정이 소식에 게재됩니다.

순례코스 : 가) 제1코스(숲정이→치명자산)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5시
제2코스(여산→천호)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나) 제2코스인 여산→천호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천호에 고산성당 버스가 대기하고 있음.

다) 본당이나 단체에서 별도 계획에 의거 성지순례를 실시하고저 할 때에는 1주일 전까지 사목국에 연락하여 책자와 메달을 수령바람.

요십이 (707) 김병오

베소라성서 강의
전도여행 마음가짐
— 傳道訓 第三 —
(마태 10 : 11~15)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 : 가톨릭센타 3층
강사 : 김정원 신부
회비 : 매주 1,500원

신부화장·파마 전문
데레사 미용타운
전주시 중앙동
전주백화점 뒷골목
전화 6—6145
범 데 레 사

코오롱 MANSTAR 맨스타 전주특약점
프로·월드컵 중앙동 직매장
졸업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주 : 김 아드리아노(敦中) ☎ ⑧ 8415
전주시 중앙동 3가 26—1(중앙동 풍년제과 앞)

전북 의료보험조합 지정
김 안 과 의 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 효 열 · 전 은 주(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남 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이 재 후
수·사 2—7032 사목회장 노 인 석

1. 금주는 가정 주간입니다 : 온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우리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시다
2. 가정방문 : 27일—인후 10구역
구역장님과 해당 구역원들께서는 대기하세요
3. 수요 성서에 모두 참여합시다 : 매주 저녁 7시30분
4. 주일학교 1일 피정 : 25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대상—국교 3·4·5학년 전원, 참가비—500원씩
5. 노송신협 제14차 정기총회 : 오늘 12시30분
장소—노송성당,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 유아 영세식 : 28일 오후 3시, 대부모님을 모시고 오후 2시까지 사무실에 나오세요
7. 신학생 부모님 면담 : 23일 오후 6시 (사제관에서)
8. 중·고생 수련대회 : 26일 오전 8시, 본당에서 출발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장소—고창 선운사
9. 87년도 주일학교 개학 : 28일 오후 3시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10. 축! 강습회 수료 : 23일 꾸르실료, 신순이·양정숙
11. 공동체 묵상회 : 25일
김정순·정원용·서정님·박옥혜·오수녀님
12. 중·고 예비자 교리 : 매주 (일) 오후 3시
13.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아직 교무금 신입을 못하신 가정은 속히 신입합시다
14. 다음주 전례담당
공식미사 : 해설—전병구, 독서·봉헌—최제인·김윤자
신자기도—노승남·한경희, 촛불봉헌—조홍기·이현자
저녁미사 : 해설—윤민자, 독서·봉헌—이양구·정인숙
신자기도—이수원·차정님, 정장을 하고 참여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601,315원 교무금 : 223,300원
지난주 신축금 : 525,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1. 사목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살회 : 오늘 오후 2시
3. 구역 모임 : 25일 저녁 8시
다가동 3반(김복림 댁 ②1269)
4. 반회장 회의 : 26일 오전 10시30분
5. 복자신협 정기총회 : 28일 오후 2시, 강당
조합원은 통장과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집에 있는 성지가지 : 다음주일 까지 사무실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7. 주일학교 교사 임원 개편
회장—김진홍, 총무—이현정
8. 금주 성당청소 : 월—다위의 탑·일치의 모후 pr
토—샛별·황금 궁전 pr
9. 금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천건 ②강기연
봉헌—신일균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유덕열, 독서—①이승열 ②강주호
봉헌—김수영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97,240원 교무금 : 610,1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1. 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 : 26일(목) 오후 2시
전 조합원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준비물—도장·모든 통장 전부
2. 중·고 청년 공동 피정 : 오늘 오후 2시~내일 오후 7시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우정의 날 : 26일(목) 저녁미사 후
4. 사목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도장 지참하세요
5. 축! 회갑 : 수월리 김영완 교육부장님
더욱 건강하시고 주님 종으로 풍성한 은총 받으시길
6. 예비자 교리 : 공식미사 후, 소성당에서
7. 축! 꾸리실리스타 탄생 : 김양순(세시리아) 자매님
8. 을뜨레아 : 23일(월) 환영식겸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144,510원 교무금 : 59,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2—2276

1. 꾸리아 월례회 : 1일 오후 3시
2. 가정방문 : 18반·19반—27일 오전 10시
3. 예비자교리 안내
일요일(성인)—공식미사 후(12시)
토요일(중·고생)—오후 6시
화요일(직장인)—저녁미사 후(7시30분)
4. 성가대 성가연습 : 매주 금요일 7시30분
본당 청년들의 적극 참여바랍니다
5. 금주전례 : 해설—고현주, 독서—①김한기 ②김봉한
봉헌—제15반
차주전례 : 해설—고정수, 독서—①유용산 ②민병부
봉헌—제16반

□ 지난주 봉헌금 : 313,07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이 덕 근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 사무실 83—5085번

※ 수녀님 부임 : 축! 환영—김 세라피나 수녀님
1. 을뜨레아 : 오늘 공식미사 후
꾸르실리스타 전원 참석바람
2. 성마리아 꾸리아 : 오늘 오후 2시
3. 주일학교 졸업식 : 오늘 어린이미사 후
4. 재속 글라라 형제회 : 다음주 오후 1시30분
5. 사목회 임원 보선 : 박순기(요한) 부회장 임명
수고하시겠읍니다
6. 글로리아성가대 단원모집 : 연습시간—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성가에 관심있는 젊은이들 참여바람
7. 전례담당 희망자 :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8. 예비자교리 안내
일요일(성인)—공식미사 후(11시30분)
토요일(학생)—오후4시30분, 화요일(노인)—오후2시
수요일(직장인)—저녁미사 후(7시30분)
9. 오늘 50주년기념 2차헌금 있읍니다
10. 주일학교교사 자체연수회 : 2월 28일(오후 2시~9시)
차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최종만, 독서—①최정식 ②최병래
8시 30분 : 해설—방유경, 독서—①손휘부 ②조풍기
공식미사 : 해설—이주영, 독서—①이영태 ②유기동

□ 지난주 봉헌금 : 983,030원 교무금 : 557,000원

(평화동)

사제관 83—8245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사목회장 김 광 환

1. 예비자교리 : 학생반—토요일 오후 6시
성인반—목요일 오전 10시반, 주일 오후 8시
(오늘 공식미사후 예비자 환영식 있음)
2. 주일학교 졸업식 : 오늘 어린이미사 후 졸업식
자모님들의 지도와 교우 형제들의 많은 참석바람
3. 신학생 송별식 : 오늘 공식미사 후, 많은 기도바람
4. 성가연습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남·녀 청년들 많이 참석바람
5. 금주 가정방문 : 26일(목) 오전 10시—7반, 오후 2시—8반, 28일(토) 오전 10시—9반, 오후 2시—10반
6. 병자방문 : 27일 오후 2시에, 사무실에 신청바람
7. 24일(화) 저녁미사 없음
8. 관포 기증 : 최씨관집 감사합니다
9. 금주전례 : 해설—박종구, 독서—①정형석 ②오우근
봉헌—1반장 가정
차주전례 : 해설—박병환, 독서—①신영창 ②권학열
봉헌—강수중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210,960원 교무금 : 110,000원
신축헌금 : 1,724,135원 사제관 비품성금 : 270,000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오늘은 50주년 헌금주일입니다
2. 장학금 지급 : 자모회 성물판매 이익금(50만원)
박용화·전민·정윤영
3. 주부 성서대학 개학 : 3월 4일 오전 10시
4. 본당 을뜨레아 : 23일 7시
5. 은혜의 밤(철야기도회) : 27일 저녁 11시
6. 유아세례 : 오늘 10시
7. 오르간 반주 : 이현자, 수고하시겠읍니다
8. 모임 : 오늘—자모회, 차주—꾸리아

□ 지난주 봉헌금 : 777,645원 교무금 : 508,900원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3—7440